

아버지

자식의 나이 30이 넘도록 처음으로 아들앞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는지라
어딘가 좀 쑥스럽고 불편한 기분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어린애마냥 고분고분 내가 시키는대로 따랐다.

호랑이같이시던 아버지가 이 순간 아들앞에서 순한 새끼양이 된듯싶었다.

연변인민출판사

정 용 호 작품 집



아버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선애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 I P)数据

父亲: 朝鲜文 / 郑勇浩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8

ISBN 978-7-80698-988-3

I. 父… II. 郑… III. ①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 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③ 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7)第117914号

父 亲

·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市京源彩印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8.125 字数: 18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80698-988-3 (民文)

版次: 2007年8月第1版

2007年8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TO

From

한 기업인의 문학 꿈

—정용호작품집의 머리말을 대신하여
한 춘

정용호는 누구인가? 병술년도 다 가는 그믐날 뜻밖에 영구에서 걸어온 장거리전화를 받았다. 영구의 정용호인데 설인사를 드린다고 첫 인사말을 건네왔다. 마침 정용호작품을 읽고있던터라 그가 바로 일면식도 없는, 그러나 작품으로 감동을 전달해준 작자라는것을 알았다.

정용호의 정체는 그의 수필 《아버지》를 읽으면 잘 알것이

한 기업인의 문학 꿈 1

다. 어릴 때 문학에 심취하여 작가의 꿈나무를 키운 사람이다.

그런데 운명의 작간이랄가 후에 그는 기업경영을 주업으로 선정하였다. 그의 작품을 읽으면 알겠지만 그는 상해에서 사업을 하다가 기업이 무너지고 귀향하였다. 그때 부친이 중병으로 고생하는것을 알고 치료비를 낸다는것이 고작해서 3천원밖에 안된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모대길 때 문학취미를 되살려 독서로 아픈 마음을 다독인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귀중하게 모았던 단돈 8000원을 들고 다시 동산재기한 기업인이다. 그때로부터 그의 사업에 춘색이 돌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법 틀이 잡힌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다.

이번에 정용호씨의 작품집 출간을 두고 나는 《정용호 현상》이라고 말하고싶다. 《정용호현상》이라고 하는데는 아래 세가지 사실을 감안해 하는 말이다.

첫째, 기업으로 인생터전을 닦은 정용호가 다시 문학의 꿈나무를 키워가는 이 사실자체가 우리 조선족문단에는 파문을 일으킬만한 새로운 문학현상이다.

문학을 하던 사람이 일단 문단을 떠난 다음 돈 버는 일에 열중하다보면 창작에 손을 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사업에서 여유가 있을 때면 꼭 다시 문학이라는 《자기마당》으로 끌려 되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사회의 전반 문화자질이 제고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회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보내고싶어하고 그래서 필을 드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의 작품은 재경내용이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전반 문단에 폭넓은 풍경을

떠올리고있다. 정용호씨의 작품은 기업인과 문인 량서인으로서의 독특한 기업생활을 묘사한 재경작품세계를 구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집에서 첫 작품인 《상업경쟁》은 재경소설이라고 말할수 있다.

둘째, 정용호의 간력을 보면 사이트에도 작품을 종종 올린다고 한다. 사이트문학은 네트워크라는 무한대 광범한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작품을 재단하는 편리성이 있다. 네트워크문학은 문학엘리트들만이 문학이라는 신성한령지를 차지하고있던 과거사를 뒤엎고 사이버공동공간에서 평등, 겸용, 공동 향유의 특징이 있어 보통사람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고있다.

네트워크문학은 작품의 창작, 발표의 자유정신을 고양하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공간은 네티즌이 자기의 자유정신을 충분히 표달할수 있는 최대한 공간을 제공하여준다. 네트워크창작의 비실리성이 창작동기의 자유를 형성하여주었으며 익명특징이 사이버신분의 자유를 제공하여주고있다. 그리고 작품을 발표하는 자유를 제공하여주고있기때문에 과거 종이매체의 전파, 성음매체의 전파와 영상성음매체전파의 장애를 뛰어넘어 무장애전파를 실현하는것으로 《작품발표가 어렵던》 과거사를 청산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네트워크창작, 즉 제4미디어창작이 지난 세가지 미디어창작을 통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게 될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파악한 정용호가 남보다 먼저 앞장에 서서 네트워크문학진지를 개척하였다.

셋째, 정용호씨의 문학창작은 중문창작을 위주로 우리

글로도 창작을 진행하고있다는 이 현상이다. 우리 조선족 문단을 볼 때 시가창작에서는 중문과 한글로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설분야나 수필분야에서는 아직 이중언어로 창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중국이라는 이 특수한 지정학적특징에서 주류사회의 언어담론에 직접 참여할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구비하여 조선족문학을 주류문단에 전파하는 작업은 중문으로 창작하는 조선족작가와 한글을 중문으로 번역하는 번역가가 담당하여왔다.

소설분야에서 중문으로 창작하여 한족문단의 일정한 승인을 받은 젊은 작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조선족문단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있다. 이것이 조선족문단에 보여준 그들의 단점이다. 정용호씨는 중문, 한글 이중문자로 창작을 다 진행하기때문에 중문으로만 창작하는 문인들의 단점을 미봉할수 있어 새로운 현상으로 문단에 알려지게 될것이다.

정용호작품중 수필 《아버지》는 중문문단의 승인을 받고 작품응모에서 대상까지 수여받은 우수작이다. 그러나 작품집전반을 볼 때 작품의 예술성이 완숙하지 못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그가 아직 정식으로 문단진출을 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취미로부터 출발하여 창작하고있다는 이 실정에서 작품에 대한 수련이 부족한것이 그 주요원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 작품집에서 선보인 작품을 볼 때 작자의 예술적잠재력이 풍부하며 일정한 천부적재간이 보인다. 사업인이라는 어려운 창작여건에서 창작범위를 새롭게 개척하고 언어구사에서 정성들인 탁마가공을 아끼지 않는다면 예

술적으로도 품위가 높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만하다.

사업과 창작에서 정진이 있기를 부탁한다.

2007년 2월 19일 정해년 정월 초이틀



차례

창작수기 1

제1부 수필편

아버지 9

약속은 하늘나라에서의 상봉 17

고향친구 35

생일선물 42

제2부 소설편

상업경쟁 51

건달뱅이 토끼 86

주말부부 96

리별 156

슬픈 런정 167

양가죽을 쓴 승냥이 193

모해 217

혼인광고 222

허, 상인의 아이 226

후기

한 기업인의 운명교향곡 231

령혼은 사이버령지를 비추는 려명 241

2 아버지

창작수기

나의 인생에서 형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 어릴적부터 나는 형님의 뒤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를 좋아하였으며 일단 형님이 무엇을 하면 나도 꼭 따라하곤 하였다.

형님이 교원으로 되니 나도 교원으로 되었고 형님이 교편을 집어치우고 한국기업에 근무하자 나도 교편을 던지고 형님옆으로 찾아갔다. 어느날 형님이 담배를 끊자 나도 담배를 끊어버렸다....

단 한가지 내가 먼저 한것이 있다면 사업을 먼저 시작한것 그것밖에 없는것 같다. 아니다! 한가지 더 있다면 형님이 문학을 한다고 하여 나도 따라하였는데 형님은 사업에 얽매여 필을 놓은지 오래되지만 나는 다시 필을 들게 되었다는 이 점이다. 내가 글쓰기에 애착을 갖게 된 첫 동기는 역시 형님의 영향을 받은것이다. 그때 형님께서는 안산조선족중학교에 다닐 때였고 나는 안산조중의 중학생이었다.

어느 하루 나한테 두툽한 편지가 날아왔는데 그속에는 형님이 쓴 장편시가 들어있었다. 이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상세한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형님이 그 당시 김철시인의 장편시집을 무척 좋아했었는데 아마 그 시집들에서 동기를 얻어 쓴 장편시 같았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작품》을 써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해주곤 하였다. 이렇게 되여 문학에 특별한 흥취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쓴 작문은 사실상 틀린 철자와 띄어쓰기가 잘못된 곳이 많았지만 내용이 좋고 좀 독특한 면이 있어 항상 학급의 모범작문으로 되여 작문시간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읽어주곤 하였다. 그 당시 어문선생님이였던 박재근선생님은 나의 작문을 학교 벽보에 자주 올려주면서 고무하여주시기도 하였다. 하여 나는 작가가 되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작가의 꿈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곡절로만 차있었다. 나의 소학시절은 백지선생인 장철생의 영향을 받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도 소학시절부터 줄곧 학급 반장으로 활약해왔고 중학교 2학년부터는 학교단지부 서기

2 아버지

와 학생회 주석으로 활약하면서 상급반 학생들을 약올리기도 하였다. 게다가 련속 현 우수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영구시제2사범학교에 시험을 치지 않고 입학하게 되었고 또 중점대학교에도 갈수 있었으나 우연한 일로 학교를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오고말았다. 후날 학창시절에 나보다 훨씬 못하던 동창들도 하나둘 중점대학에 붙게 되자 나는 공부를 하지 않은것이 얼마나 후회되었는지 모른다. 그때 내 마음을 달랠수 있었던것은 바로 문학이었다.

나는 돈만 있으면 책을 사들였고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게걸스레 독서를 하였으며 마을 소학교에 가서 소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어문교과서를 빌려다가는 우리 글 철자, 띄여쓰기를 열심히 자습하였다.

나는 작가가 되겠다는 유일한 꿈으로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글을 쓰군 하였는데 한동안은 일주일에 2~3편씩 료녕조선문보에 원고를 보내군 하였다. 나의 열정에 감동되었던지 그 당시 《료녕조선문보》 압록강부간의 담당편집이었던 김광명선생님이 나의 짧은 글 한편을 원 내용은 그림자도 없다싶이 수정해서는 내 이름으로 발표해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작가로 되겠다는 결심을 더더욱 굳히게 되었다. 나는 더욱 넘치는 열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때 쓴 《부부》란 글은 근 20만자되는 장편이었다. 나의 이런 글공부는 마을 소학교 교장선생님의 눈길을 끌게 되었고 끝내는 학교교원으로 초빙되었다.

후에 나는 한어과목을 맡고 장장 10년간의 교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사이에 4년동안 료녕조선족사범학교 통신 학습을 마쳤고 어문선생님이었던 김무길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장편습작을 지도받았다. 선생님은 학교 교보에 자주 나의 글을 올려주었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짧은 시 한편을 《장백산》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의 장편소설 《부부》는 결혼이 아니라련애조차 변변히 해보지 못한 놈이 부부란 가정이야기를 썼으니류산되고말았다. 후에 많은 통신보도들이 《료녕조선문보》와 《반금일보》 등에 발표되었으며 중문소설 한편이 《반금일보》에 발표되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 시절들이 가장 뜻깊은것 같다. 나의 작가꿈은 교편을 집어치우고 형님을 따라 한국기업이란 곳으로 왔을 때부터 깨여지고말았다.

내가 다시 필을 들게 된것은 상해에서 사업을 맡아먹고 집에 돌아와서 몇달이고 문밖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집구석에 들어박혀있을 때부터였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책들을 아버지가 골라서 보관해두었다가 내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나는 다시 책속에 파묻혀 마음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일기삼아 글을 쓰면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이겨냈다. 내가 제일 힘들었던 두차례의 인생고비를 동반해준것은 다름아닌 문학이었다.

나는 2000년부터 공장을 꾸렸으나 줄곧 한국기업인 영구협진봉제품유한회사에서 생산 총관리직으로 일하여왔고 나의 개인공장은 안해와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관리하여왔었다. 내가 공장건물을 짓고 사업을 확대하면서 한국기업에

4 아버지

서 사직하고 나의 회사에 와서 직접 사무를 보았을 때 업무가 별로 많지 않아 시간적여유가 좀 많았었다. 그때부터 컴퓨터에 빠지게 되었으며 많은 문학사이트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사이트문학소설들을 많이 쓰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한것이 중문으로 된 문학이었다. 우리 글 사이트문학은 중문에 비해 워낙 약한 편이였고 사실 우리 글 문학사이트가 있는줄도 몰랐기에 중문으로 쓸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때 쓴 글들이 나의 그림자가 많이 얼른거린다는 소설 《상업경쟁》, 《건달뱅이 토끼》 등이였고 내가 힘들 때 일기삼아 써놓았던 글들인 《슬픈 련정》, 《리별》 등을 다시 수정하여 발표한것이였다.

나는 북경 로신문학원 통신학습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글쓰기를 익혀왔고 2005년 후반기에 다시 필을 들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일년 남짓한 사이에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고 또 문학상도 몇차례 받았다. 여러 잡지사의 특약작가, 영예고문 등으로도 초빙받았고 많은 문학사이트의 편집으로도 활약을 해왔다. 수필 《아버지》는 《시월론단》, 《룽쑤》, 《홍쑤》 등 수많은 사이트에 전제되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고 2006년에 있는 《제1차전국실화산문웅모》활동에서 수만부나 되는 작품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아버지》를 번역하여 심양조선족문학회에서 꾸리고있는 《료동문학》사이트에 올려놓았더니 많은 공명이 일어났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신심을 갖게 하였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도라지》문학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송화강》수

필용모소식을 알게 되어 《송화강》잡지에 투고를 해보았다. 투고한지 10일도 안되어 2006년 제9기에 발표되었다는 홍균식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홍균식선생의 사업효률에 탄복하였고 그후부터 그와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 사실 우리 글에 대하여 워낙 기초가 약한데다가 10여년 우리 글로 된 책들을 읽지 않았으니 요즈음 새로 나온 단어들은 물론 철자, 띄어쓰기조차 다 잊어버린 상황이라 우리 글로 글을 좀 써보자는 마음이 불붙듯하지만 너무나도 힘에 겨운 일이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의 자원적도움이 있었기에 우리 글을 다시금 조금씩 익혀가고있는중이다. 이것은 정말 행운이 아닐수 없다.

2006년은 나의 문학풍년해였다. 일년사이에 중문으로 된 작품집도 나왔고 《송화강》, 《흑룡강신문》, 《장백산》 등에 우리 글로 된 작품들도 여러편 발표되었다.

나는 신심 가득히 2007년을 맞이하였다. 비록 10여년간 줄곧 근무해오던 한국기업에 다시 들어가 근무하는 한편 개인공장도 함께 경영하자면 힘에 겨운 일이지만 그래도 질적으로는 꼭 우수한 글을 써내리라고 믿는다.

이번에 또 내 작품이 《도라지》추천작가작품으로 되는 영예를 안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 그 많은 훌륭한 작가분들을 남겨두고 햇내기인 나에게 추천작가란 영광을 주어서 너무 감개무량하다.

지은이
영구에서

6 아버지